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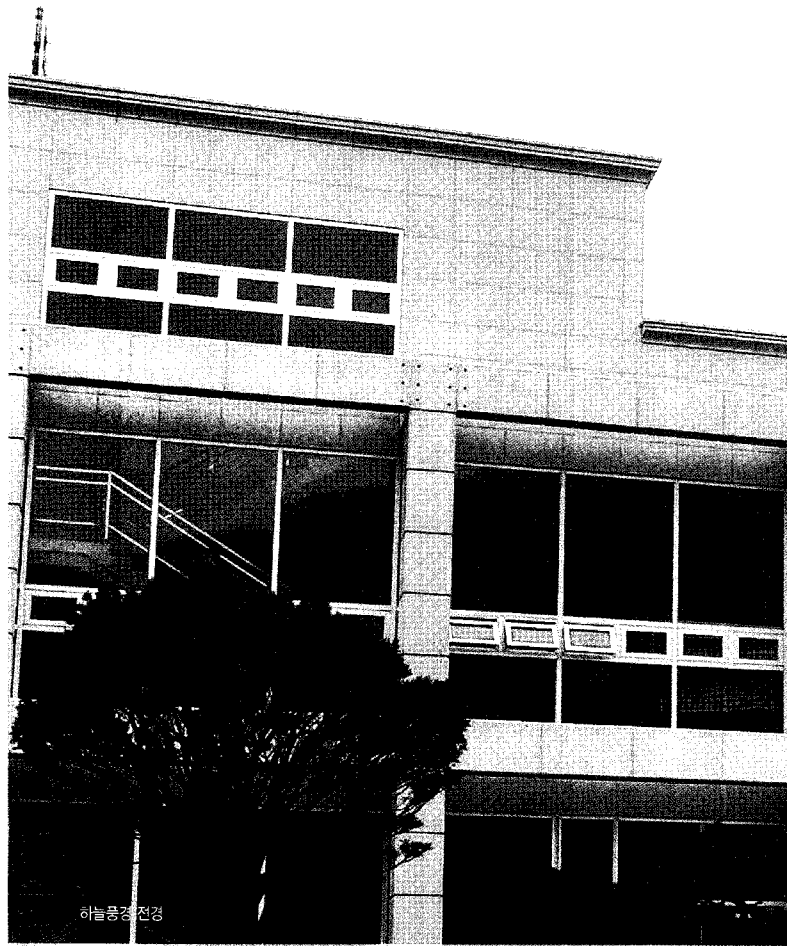


이일우
(상아조경 대표)

우리나라 근대 산업화의 대표적 도시 울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중심지인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과 비철금속·석유화학 생산 기지의 온상, 국가산업단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제일의 공업도시인 울산광역시에 자리한 이일우 사장의 상아조경을 찾았다.

상아조경은 울산고속도로의 종점인 울산IC에서 북쪽으로 약12km 정도 떨어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라는 농산촌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 척과리 뒷산은 해발 600~700m가 되는 치술령과 국수봉으로 박제상과 망부석으로 유명한 곳이며, 그 산 아래 골짜기가 길이를 재는 긴 자와 같이 생겼다하여 자척(尺)자를 써서 척과리라 이름 지어진 곳으로 진입도로나 논, 밭두렁들이 구불



하늘물결 조경

구불 옛날 그대로인 것이 누가 보아도 농산촌 지역이지만 마을 주택들은 모두다 크고 멋진 최신 대형 전원주택들이고 도로변에 줄지어 늘어선 각종 위락, 편의 시설들은 한적한 산촌 풍경과는 사뭇 낯설기만한 공업도시 울산의 변화되는 농촌을 실감할 수 있다.

조경업의 꿈을 찾아

그는 대대로 농사를 짓던 가정에서 1955년도에 6남1녀중 넷째로 태어나 성장기를 수려하기 한이 없던 울산의 산천이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풍광을 보면서.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경치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요.....(중략)...동해나 울산은 좋기도 하지” 하던 민요 속 가사처럼 한적하기만하던 고향이 바다가 메워지고 산은 깎이어 공장들이 들어서고, 논·밭에는 주택들과 각종 빌딩들이 솟아나고, 외지인들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굴뚝의 매연과 하천의 오염들을 바라보면서 뜻한 바 있어 멀리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구 진주농과대학) 입학과를 지원하여 조경학에 심취,

상아조경의 하늘풍경을 찾아서 ...



클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졸업과 동시 1981년도에 조경기사 1급을 취득하여 1982년도에 종합조경회사인 대능건설(주)의 조경부에 입사, 울산과 부산지역 현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조경설계, 시공을 맡아 세서는 일찍부터 젊고 유능한 실력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고향땅에서 시작한 조경회사

울산지역이 공단으로 조성되던 60~70년대는 개발이 우선이었지만 80년대 이후 환경과 자연중심으로 변해되면서 자연히 크고 작은 공원이나 정원 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조경업이 앞으로 유망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간 고향땅 여기저기 틈틈이 심어 놓았던 모과나무, 느릅나무, 꽃사과, 단풍나무 등 조경수들을 발판으로 1991년도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30대 젊은 나이에 고향 울산에서 대명개발이라는 단종조경을 창업, 그간의 많은 경험과 인맥을 살려 조경설계·시공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젊은 사장이 되었으며 이후 종합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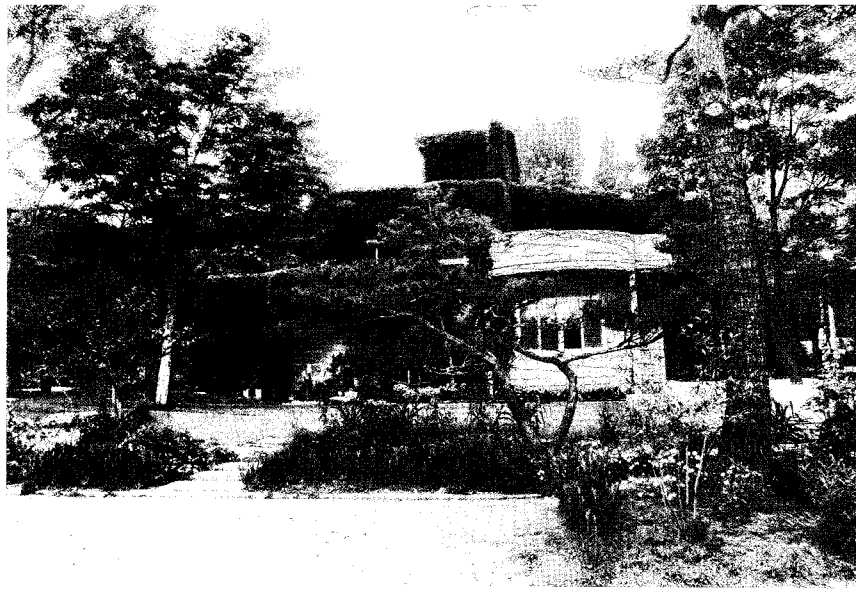
회사인 지금의 상아조경을 설립하여 현재 직원 15명에 연간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울산지역 굴지의 조경회사로 성장 하였다.

치슬령 망부석 아래 조경수 농장

상아조경의 발판이 된 핵심 농장은 고향 척과리에서 3~4km정도 떨어진 이웃부락인 두산리에 있다. 경북 경주시와 접경 부락으로 그 옛날 서라벌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던 관문이 있던 마을로 지금도 그 성터와 노거수들이 천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잘 보존된 문화유적지로 한적한 고갯마루에서는 금방이라도 신라의 병사들과 행인들이 나타날 것 같은 아주 고풍스런 옛날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관문성"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불려지고 있는 마을이다. 그 성문 옆 서편 계곡을 따라 300m쯤 들어가면 멀리 치슬령(해발 765m)과 망부석이 바라보이는 산기슭에 50,000여평의 넓은 농장이 자리하고 있다.



상아조경_하늘동경내 정원



상아조경_하늘동경내 야외 예식장

충신 박제상과 망부석이 된 부인

왜국에 볼모로 잡힌 미해왕자를 기지를 발휘해 탈출시키고 대신 왜왕에게 잡혀 갓은 고문과 회유에도 굽히지 않고 “내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너희 왜국의 신하가 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신라의 매질은 받을지언정 너희 왜국의 작록은 내 받고 싶지 않다.” 고 하다 끝내는 왜왕에게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는 신라의 충신 박제상. 그를 기다리기 위해 멀리 동해 바다가 보이는 이곳 치술령(해발 765m) 산마루에서 통곡하며 기다리다 지쳐 결국 두 딸과 함께 세 모녀가 돌이 되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는 망부석. 지금 울산광역시 기념물 1호인 망부석이 있는 치술령 정상에서 뿔어 내려온 골짜기가 멈춰선 산속에 자리한 농장은 인공식재와 자연생이 반반인 상아조경의 주된 농장이다.

린 나무들이다. 1991년도에 시작하였으니 제법 큰 나무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체 공사에 쓰기 바빠서 그때마다 큰 것은 다 뽑아 쓰다보니 큰 나무들이나 멋지고 잘 생긴 것들은 없고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나무 조형목들은 멋지고 특이한 것이 많다. 이곳 소나무들은 강원도나 경북 지방의 백두대간 지역 소나무와 같이 곧고 짝쪽 자란 장송들이 아닌 약간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자라는 것들을 그 나름대로 멋지게 손질하여 누가 봐도 인공을 가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품미가 묻어나는 멋진 소나무 조경수들로 가꾸어 놓았다. 그래서인가 자연생 조형소나무 조경수는 어느 곳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는 전문 농장이다.

난대 상록활엽수 조경

상아조경 이일우 사장은 조경수 재배보다는 조경설계 시공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지만 재배 역시 특유의 안목으로 남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조경 설계부터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울산지역은 공단지대인 관계로 겨울철이면 삭막하기 그지없는 회색의 도시로 변해 버리고 말아, 사계절 푸른 도시 조경을 위해 사람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는 초록색 조경수를 찾아 일찍부터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상록 활엽수 종자들을 가져다 파종도 해보고, 묘목을 사다가 양묘를 하면서 기후가 맞지 않아 실패하거나 파종이나 육묘법을 몰라 망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이 지방에서 직접 양묘·생산한 것만이 제대로 활착, 적응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습득하여

소나무 조형목이 일품인 농장

이곳 농장은 본래 자연생 소나무가 많았던 산을 개간하여 조성한 곳으로 작업도로 주변에는 주로 산딸나무와 느티나무를 가로수용으로 심어 재배하고 있고 약간 평탄한 곳에는 배롱나무, 서어나무, 노각나무, 왕벚나무 등 활엽수들이 심어져 있지만 대부분 어



조형소나무와 농장전경



배롱나무 재배지



척과리의 치자나무 농장

고향 척과리 농장을 상록활엽수 전문 농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꽃향기가 일품인 치자나무가 300여평 밭에 가득하고, 조록나무, 가시나무, 팽나무, 돈나무, 아왜나무 등 난대 수종들을 이곳 추위에 적응시켜 잘 키우고 있어 울산지역 상록활엽수 조경의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다.

은을암 계곡 아래 상아조경과 하늘 풍경

왜국에 불모로 간 왕자를 구하고 죽임을 당한 충신 박제상을 그리며 통곡하다 죽어 망부석이 되었다는 그 부인과 두 딸의 혼이 부인은 “치”라는 새가 되고 딸은 “술”이라는 새가 되어 숨어 들어갔다는 바위굴 “은을암”. 깊이 8m에 굴 입구가 폭 1.2m내외 높이가 1.8m 정도인 작은 바위굴이 있고 그 굴 앞에는 불쌍한 녀를 달래기 위해 지었다는 천년고찰 “은을암”. 지금도 암석 굴에서는 맑은 물이 사철 흘러나와 울산지역 불교 행사시에는 이 물을 떠다 차를 달인다는 유명한 곳으로 치술령(해발765m)과 국수봉(해발604m) 사이 “은을암” 계곡 입구 마을인 이곳 척과리 농장에는 상아조경 이일우 사장의 또다른 사업체인 “하늘풍경”이라는 대형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울산광역시시의 시가지 인근이라 하지만 아직은 눈·밭이 대부분인 산촌마을로 자택이 있던 조경수 농장 2,000평의 부지에 주변풍경과는 영똥하기 조차한 건평 500평의 3층짜리 멋들어진 대형 건물을 신축 “하늘풍경”이라는 상호로 예식장과 레스토랑 그리고 갤러리가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세인을 놀라게하는 기발한 착상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앞서가는 농촌의 선구자

남보다 항상 앞서가고 성실하며 특히 부지런한 성격인 그는 변화하는 농촌과 발전하는 농촌을 위하여 신토불이 우리농산물 생산만 외치거나 도시의 확장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인들이 쉬고 즐기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그는 좀 엉뚱하기조차한 시내와는 동떨어진 시골 마을에 크고 멋진 실내 예식장과 정원이 일품인 야외 정원 예식장을 갖추어 놓고, 소박하면서도 개성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농촌하면 토속음식을 떠올리는 발상을 접고 시내 어느 곳 못지 않은 최고급 레스토랑과 취미와 특기를 가진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공간인 미술 갤러리를 운영하는 등 낙후된 농촌이 아닌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자연과 농촌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생산과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농촌의 선구자이다.



멀리 치술령이 보이는 농장에서



울산지역 초대 지부장 8년 조경인의 구심점

그는 우리 조경수협회 회원으로는 1998년도에 가입하였지만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2001년부터 울산지역 조경수협회 초대 지부장을 맡아 지난 연말까지 8년간 회원 상호간의 이익 증진은 물론 신기술의 개발·보급과 지역사회에 조경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왔으며 금년부터는 조경수협회 분회 부회장직을 맡아 더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경인이다.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조경시설은 2000년도에 직접 설계하여 1년간 공사 끝에 완공한 “울산들꽃학습원” 조성으로 이곳 척과리에서 시내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총면적 2.6ha(7,800평)의 부지위에 800여종의 각종 수목류, 초화류, 작물류 등 수만본을 식재하고 현장 실습 및 놀이시설들을 운치있게 배치·조성하여 울산지역의 학생과 교원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최고의 들꽃 학습, 견학 및 교육연수 장소가 되었으며 한번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과 감탄을 아끼지 않는 유명 개소로 자리 잡아 조경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의 실력을 널리 인정받게 되었으며, 지금도 조경인의 경조사는 물론 조경수의 판매, 시공에 정보 제공과 공동 납품 등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 지역 조경인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전원도시 속의 그린조경

전국의 군 지역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군이 바로 이곳 울주군이다. 지금 인구가 20만명. 그 울주군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은 바로 이곳 상아조경과 하늘 풍경이 있는 범서읍으로써 울산시내와 연결된 관계로 도시 확장에 따라 이곳 농장 지역도 휴식과 자연 체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현재 울산 중구청에서 편입하고자 추진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들꽃학습원” 일대에는 3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축이 확정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전원도시로 탈바꿈하리라는 희망속에 오늘도 그는 새벽 4시면 기상하여 조경수 농장과 “하늘풍경”의 정원을 손질하며 새로운 꿈에 부풀어 있다.



하늘풍경앞에서 부인과 함께

예능을 갖춘 조경 가족

그는 부인 안순임(50세) 여사와의 사이에 남매를 둔 4인 가족으로 성악을 전공했던 부인은 새로이 그림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 그가 그린 수준 높은 대형 작품들이 “하늘풍경”의 넓은 예식장과 레스토랑은 물론 전문 갤러리의 벽을 장식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감탄시키고 있으며 남매인 자녀 모두 아들은 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 중이고 딸은 성악과를 졸업한 후 뮤지컬 공연으로 열연중인 재원으로 가족 모두 문화를 선도하는 예능을 갖춘 조경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



두산의 농장 입구 전경



자연생 소나무 농장